

## News

###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하라"... 특명 받아든 카뱅·케뱅

머니S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신용대출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중·저신용 고객 대출 확대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케이뱅크도 자본확충을 통한 중금리 대출 확대에 보폭을 넓히고 있다. 금융당국의 입김이 더해진 영향으로 인터넷은행들이 중·저신용자 대출 적극적으로 늘리고 있다.

### 씨티은행 "복수 금융사 인수 의향서 제출"...매각 성사될까

연합뉴스

한국씨티은행이 국내 소비자금융 부문 전체 매각(통매각)을 우선 추진하는 가운데, 복수의 금융회사가 전체 또는 부분 인수 의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씨티은행은 7월 중 전체 매각, 분리매각, 단계적 폐지 중 어떤 방안을 추진할지는 적어도 확정짓겠다는 방침

### 하나은행, 영국 펀드 가지급금 이달 중 지급 완료

한국금융신문

하나은행은 환매 중단된 영국 펀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1일부터 가지급금 지급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오는 18일까지 신청을 받고 24일 일괄 지급할 예정  
앞서 하나은행은 지난달 13일 이사회를 열고 영국 펀드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50% 수준의 가지급금을 우선 지급하기로 결정

### 몸집 줄이는 국민은행, 내달 28개 점포 축소

e대한경제

KB국민은행이 시중은행 가운데 가장 적극적으로 조직 슬림화를 추진 중. 다음달에만 28개 점포를 통폐합하는 등 지점 축소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한편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 등 4개 은행의 지점 및 출장소 등 점포 수는 총 3276개로 지난해 1분기 대비 177개 감소

### 교보생명, 즉시연금 소송서 패소...3대 생보사 중 처음

이데일리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교보생명을 상대로 덜 준 보험금을 달라고 낸 소송에서 승소. 교보생명은 판결문을 검토한 후, 추후 대응방안을 결정하겠다는 입장  
즉시연금 공동소송에서 피고 보험사가 패소한 것은 미래에셋생명과 동양생명 이어 세 번째

### 증권사가 15년간 쌓은 400만계좌, 카카오는 1년만에 달성

조선일보

카카오의 금융 서비스인 카카오페이증권의 증권 계좌는 400만개가 넘는다. 지난해 3월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1년이 조금 넘는 기간에 달성한 수치  
증권 업계 3위인 한국투자증권이 15년 만인 올 3월 400만 계좌를 돌파한 것과 비교하면 급속성장한 셈

### 거래소 "이유 없이 오른 20여개 스팩주 기획감시 실시"

서울경제

한국거래소는 최근 스팩주(SPAC)가 이상 급등락을 보이자 불공정거래가 개입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로 결정  
"최근 다수의 스팩들이 합병 대상 기업의 확정 등과 상관없이 주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기획감시 실시한다"고 밝혔다.

### 금감원, 한국투자증권 징계...팝펀딩 사모펀드 불안전판매

뉴시스

5월 3일 금감원은 한투증권과 부산은행에 대한 제재심을 개최했다. 한투증권은 팝펀딩 사모펀드 불안전판매, 부산은행은 라임펀드 불안전판매 혐의를 받는 중  
다만 한투증권이 손실액 일부를 투자자들에게 미리 배상했다는 점은 징계 수위의 감경 요소로 꼽힌다. 판매 규모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존재

####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